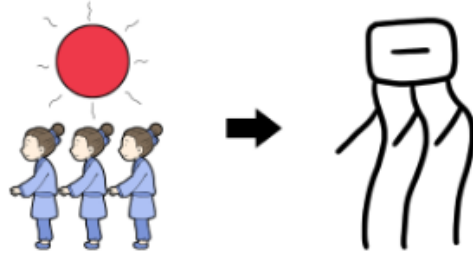


4(2)
-
191

회의문자①



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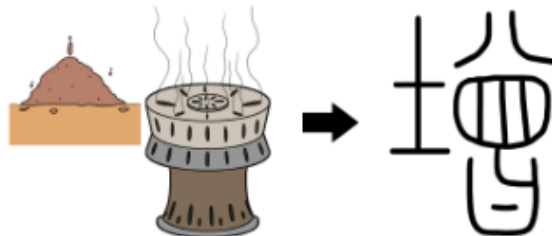
무리 중:

衆자는 '무리'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衆자는 血(피 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衆자는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친 글자다. 갑골문에서는 많은 사람이 피약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태양 아래에 3명의 사람을 𠬞 그렸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日(날 일)자가 𠬞(그물 망)자로 잘못 바뀌게 되었고 해서에서는 다시 血로 잘못 표기되면서 지금 衆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衆자는 본래 사람이 많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이나 '대중',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衆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𠬞자나 𠬞자 𠬞자와 같은 여러 글자가 파생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92

회의문자①



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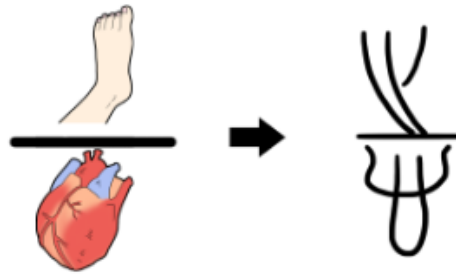
더할 증

增자는 '더하다'나 '겹치다', '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增자는 土(흙 토)자와 曾(일찍 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曾자는 찜통 위로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일찍'이나 '겹치다'라는 뜻이 있다. 增자는 이렇게 '겹치다'라는 뜻을 가진 曾자에 土자를 더한 것으로 '흙을 층층이 겹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增자는 본래 집이나 담벼락을 만들기 위해 흙을 층층이 다져나가던 것을 뜻했었으나 지금은 단순히 무언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소전	해서

4(2)
-
193

회의문자①



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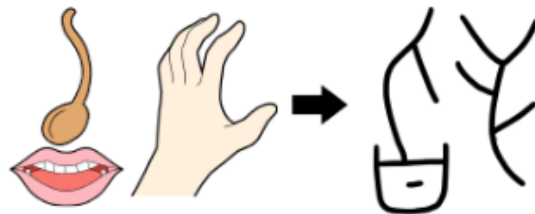
뜻 지

志자는 '뜻'이나 '마음', '감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志자는 士(선비 사)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志자를 보면 본래는 之(갈 지)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고자(之)하는 마음(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志자는 자기 뜻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之자가 士자로 잘못 옮겨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4(2)
-
194

형성문자①



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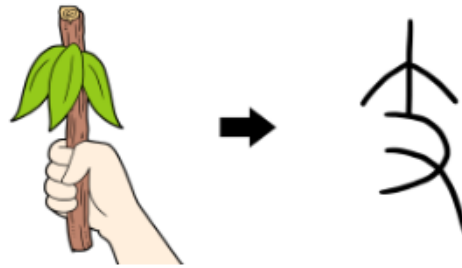
가리킬
지

指자는 '손가락'이나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指자는 手(손)자와 旨(맛있을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旨자는 수저를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指자는 본래 '손가락'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지시를 내린다는 뜻이 확대되어 '가리키다'나 '지시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4(2)
-
195

회의문자①



支

지탱할
지

支자는 '지탱하다'나 '버티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支자는 攴(또 우)자와 十(열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支자에 쓰인 十자는 숫자와는 관계없이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이다. 支자는 본래 '나뭇가지'를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木(나무 목)자가 더해진 枝(가지 지)자가 '가지'라는 뜻으로 파생되었고 支자는 '지탱하다'나 '버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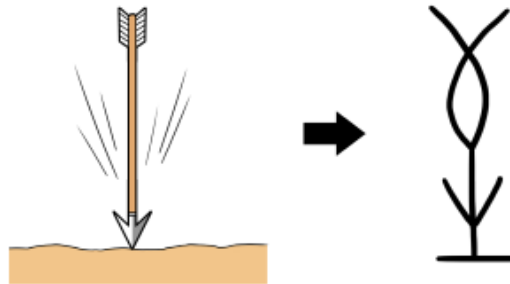
소전

支

해서

4(2)
-
196

상형문자①



至

이를 지

至자는 '이르다'나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至자는 화살을 그린 矢(화살 시)자가 땅에 꽂힌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至자를 보면 땅에 꽂혀있는 화살이 𠂆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至자는 대상이 어떠한 목표지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에서 '이르다'나 '도달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至

갑골문

至

금문

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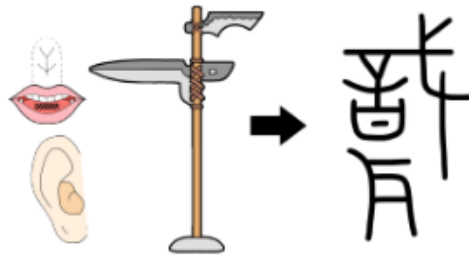
소전

至

해서

4(2)
-
197

회의문자①



職

직분 직

職자는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職자는 耳(귀 이)자와 音(소리 음)자, 戈(창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소리(音)를 듣고(耳) 기록한다(戈)'라는 뜻이다. 戈자에 있는 새겨서 '기록한다'라는 뜻을 이용해 어떠한 말을 듣고 기록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職자의 본래 의미는 '기록한다'였다. 하지만 후에 기록을 담당하는 신분이 강조되면서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4(2)
-
198

회의문자①



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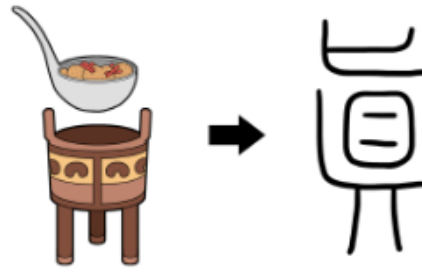
나아갈
진:

進자는 '나아가다'나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進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작은 새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進자의 갑골문을 보면 止(발 지)자와 隹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彳(조금 걸을 척)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進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進자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후퇴 없이 앞으로만 쭉 나아가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새는 앞으로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밀고 나아가간다는 뜻의 '추진(推進)'이라는 단어에 각각 隹자가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99

회의문자①



眞

참 진

眞자는 '참'이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眞자는 目(눈 목)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眞자는 본래 鼎(술 정)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鼎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큰 솥을 뜻하고 匕자는 '수저'를 표현한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참되면서도 정성이 담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眞자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참되다'나 '진실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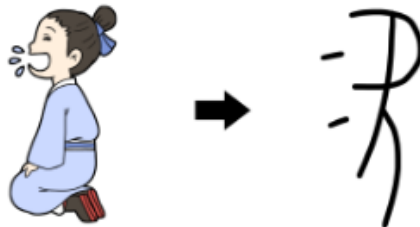
소전

眞

해서

4(2)
-
200

회의문자①



次

버금 차

次자는 '버금'이나 '다음', '차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次자는 二(두 이)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二자는 단순히 침이 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입에서 침이 튀는 모습은 남을 나무란다는 뜻이다. 그래서 次자는 '마음대로'나 '비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버금가다'나 '다음'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心(마음 심)자를 더한 恣(마음대로 자)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次

금문

次

소전

次

해서